연꽃 향기 가득한 힐링의 계절

전국 사찰 지자체 연꽃축제 개막

조계사 · 봉은사 등 연꽃도량장엄
비대면 온라인방식 무안연꽃축제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조계사의 지난해 연꽃축제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연꽃의 계절이 찾아왔다. 서울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의 사찰과 지역자치단체들이 다양한 주제와 이야기로 의미 있는 연꽃축제를 시작했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7월5일 제7회 연꽃축제 '나를 깨우는 연꽃향기'의 개막식을 봉행하고 연꽃의 의미와 향기 속에서 각자를 깨우기 위한 화엄의 법석을 시작했다. 조계사의 이번 연꽃축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500여 개의 옹기에서 개화를 시작한 백련과 홍련 등 다양한 연꽃들이 대중을 맞는다. 주지 지현 스님은 개막사에서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세상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깐 멈춰서 '나'라는 사람의 향기를 연꽃처럼 맑고 향기롭게 피워낼 수 있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깨우는 첫걸음일 것입니다"고 연꽃축제의 의미를 전했다. 조계사는 매년 여름 경내에 연꽃을 전시하는 축제를 열고 있다. '나를 깨우는 연꽃향기' 연꽃축제는 7월과 8월 두 달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7월 5일 백중 49일 기도입재와 함께 '가족과 함께하는 봉은사 연꽃축제'를 시작했다. 분홍빛의 연꽃을 담은 500여 개의 연꽃화분들은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흰색 영가등과 함께 도량의 길과 길을 이으며 색다른 포행의 즐거움으로 무더위를 잊게 한다. 도량을 찾은 대중은 연꽃화분마다 가족의 건강과 소망을 담아 서원하며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백중 49일기도는 8월 22일까지 진행되며 봉은사 연꽃축제는 9월 3일까지 이어진다.

△**경기도 남양주 봉선사**(주지 초격)는 7월 17일부터 24일까지 경내와 특설무대에서 제19회 봉선사 연꽃축제 '치유와 희망을 노래하다'를 개최한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열리는 이번 봉선사의 연꽃축제는 상설프로그램과 체험프로그램, 그리고 음악회로 나뉘어 진행된다. 상설프로그램으로 오채현 석조각 초대전, 아름다운 봉선사 사진전, 프리마켓(바자회), 버스킹 공연, 소원지 달기, 전통등(터널) 전시가 축제기간 동안 대중을 맞는다.

체험프로그램으로는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통차 무료시음, 연꽃등 만들기, 염주 주머니 판매, 페이스 페인팅이 진행되고, 7월 23일부터 24일까지 가훈 · 경구 쓰기가 진행된다. 7월 24일 하루 동안에는 연밥시식, 도자기 체험, 어린이 사생 및 청소년 백일장, 드론체험이 열린다. 7월 24일 오후 7시부터는 1부 기념식과 2부 음악회가 열린다. 음악회에는 한국적 노래를 부르는 가수 장사익, 고속도로 트로트퀸 금잔디, 노래 '칠갑산'의 주병선, 심진 스님, 파스텔걸스, 진접읍 주민자치센터 난타동아리 '비트홀릭', 마야무용단, 봉선사 연꽃미소 합창단이 출연한다.

△**충남 부여군**은 7월 10일부터 18일까지 부여 서동 궁남지 일원에서 제19회 부여서동연꽃축제 '연꽃愛 향을 담다'를 개최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열리지 못하고 2년 만에 열리는 이번 축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축제가 진행되며, 궁남지의 자연경관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축제이다. 군민과 관광객들이 코로나로 지친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힐링의 축제와 사랑이야기가 담긴 설화 중심의 스토리텔링 축제로 꾸며진다.

행사의 대표 프로그램인 포룡정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은 〈삼국유사〉 서동 탄생 설화를 모티브로 하여 3D프로젝션 맵핑을 활용한 실감콘텐츠로 구성됐으며 행사 기간 중 매일 저녁 2회 관람할 수 있다. △궁남지 연지 속 카누체험 △열기구 타고 사랑 고백 △서동가족, 선화찾기 챌린지 등 부여서동연꽃축제에서만 즐길 수 있는 이색적인 체험프로그램도 현장 예약 또는 사전 온라인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참여와 시청이 가능한 사전 프로그램으로는 △부여 농특산물을 활용한 영자 씨 부엌 온라인 쿠킹클래스 △전국 부~야호 댄스챌린지 ucc 공모전 △추억을 담다 해시태그 사랑의 추억 쌓기 △부여군학부모연합회와 함께하는 친환경 교육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 밖에 회산백련지로 유명한 **전남 무안군**은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비대면 축제 방식으로 제24회 온라인 무안연꽃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기도 양평군 세미원은 6월 21일부터 8월 15일까지 연꽃문화제를 개최한다. 6만2천 평 야외정원에서 홍련, 백련 등을 선보인다.

1971년 개장한 **제주도 한림공원**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림공원 연꽃축제를 개최한다.

아기부처님이 룸비니동산에서 첫 걸음을 옮기실 때 발걸음마다 피어났던 연꽃은 〈화엄경탐현기〉에서 "연꽃이 향(香), 결(潔), 청(淸), 정(淨)의 네 가지 덕을 가지고 있다"고 적고 있다. 불보살이 앉아 있는 자리를 연꽃으로 만들어 연화좌 또는 연대라 부르는 것도, 번뇌와 고통과 더러움으로 뒤덮여 있는 사바세계에서도 고결하고 청정함을 잃지 않는 불보살을 연꽃에 비유한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오늘의 사바에서 열리는 연꽃축제가 그 의미를 더한다.

전국 연꽃축제 일정

장 소	제 목	일 정
서울 조계사	제7회 '나를 깨우는 연꽃향기'	7월 5일 ~ 8월 말
서울 봉은사	가족과 함께하는 봉은사 연꽃축제	7월 5일 ~ 9월 3일
경기 봉선사	봉선사 연꽃축제 '치유와 희망을 노래하다'	7월 17일 ~ 24일
경기 세미원	연꽃문화제	6월 21일 ~ 8월 15일
충남 부여군	부여서동연꽃축제 '연꽃愛 향을 담다'	7월 10일 ~ 18일
전남 무안군	제24회 온라인 무안연꽃축제	8월 18일 ~ 22일
제주 한림공원	한림공원 연꽃축제	7월 1일 ~ 8월 31일

제2회 해인사 팔만대장경 웹툰 공모전

접수 7월 5일부터 9월 17일까지
결과는 10월 4일 홈페이지 발표
대상 500만 원, 시상 10월 16일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현응)는 제2회 해인사 팔만대장경 웹툰 공모전을 개최한다. 해인사와 팔만대장경에 대한 가치를 증진시키고, 일반인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전에서는 제1회 공모전과는 달리 '팩션으로 다시 쓰는 어느 불교문화재의 원더풀한 이야기'라는 부제 속에서 진행된다.

공모 주제는 팔만대장경과 해인사 관련 주제로, 팔만대장경 조성, 팔만대장경 우리말 번역, 팔만대장경 수호, 팔만대장경과 관련된 해인사 이야기이다.

대한민국 거주자로 2005년 이후 출생자면 공모 가능하며, 접수는 7월 5일부터 9월 17일, 결과는 10월 4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시상은 10월 16일 해인사 경내에서 열릴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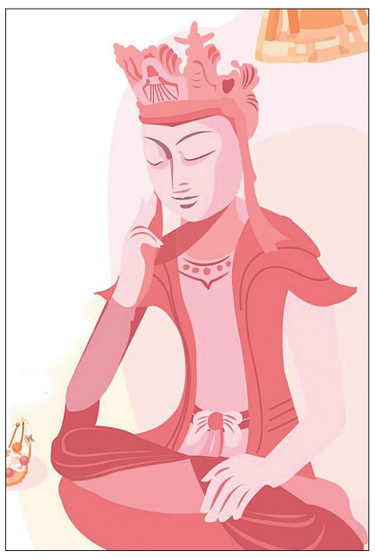
접수방법은 해인사 홈페이지(www.haeinsa.or.kr)에서 신청서 작성 후 출품작과 함께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 된다.

출품 작품은 웹툰 1회 분량의 완성 원고(해상도 300dpi)이며, 저작권 관련 문제가 없는 작품으로 타 공모에 출품 또는 연재된 적이 없는 순수 창작 작품 6회 분량의 출품작 시놉시스를 제출해야 한다. 모방, 폭력성, 선정성 등을 포함한 작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상 내역은 대상(1명) 500만 원, 우수상(2명) 각 150만 원, 장려상(4명)은 각 50만 원이다. 대상작은 불교신문을 통해 연재되며 연재료는 별도 지급된다.

박재완 기자

제2회 국립박물관 상품 정기공모



10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 접수

반가사유상 등 불교미술을 주제로 한 상품 공모가 열린다. 전국 국립박물관 내 문화상품점 및 온라인 뮤지엄 숍을 운영하고 있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제2회 국립박물관 상품 정기 공모를 진행한다.

재단이 운영하는 온 · 오프라인 문화상품점에 입점할 문화상품을 유치하기 위한 이번 공모는 10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 접수를 진행하며, 결과는 10월 27일 발표하고 계약체결은 2022년 12월 31일 개별 통지한다.

공모 주제는 국립박물관의 대표유물을 활용한 문화상품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은 반가사유상 78호, 83호와 불교미술이며, 국립대구박물관은 관음보살, 회혼례첩, 떨잠, 조복, 갓 등이다. 공모대상은 공예품, 생활소품, 패션잡화, 액세서리, 유물재현품, 어린이 상품, 문구사무 등이며, 신청 자격은 개인 및 기업(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도 참가 가능)이다.

접수 방법은 이메일로 서류를 접수하고 방문 또는 택배를 이용해 견본과 완제품(시제품 가능), 상품패키지, 상품설명서를 접수한다. 문의-국립박물관문화재단 문화상품팀 국립박물관상품 공모 담당자. 전화 (02)2077-2932(평일 09:00~18:00) / 전자우편 design@cfnmk.or.kr

박재완 기자

